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삶에 대한 감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Private Donors' Emotional or Demonstrable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Moderation Effect of the Gratitude for their lives

이원준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Won-June Lee(wjlee@cs.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그리고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밝혔다. 주요 발견점을 요약하면, 첫째, 후원활동을 하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한 개인기부자 집단의 경우, 기부활동을 통한 정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수용은 정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는 자기수용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후원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정신적 웰빙에 정서적 효용감은 정적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수용은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 증가여부에 의한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었고, 기부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적 웰빙은 물론, 자기수용,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져, 기부활동을 통한 정신적 웰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실천과제임을 제시하면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기부자 | 정신적 웰빙 | 정서적 효용감 | 가시적 효용감 | 자기수용 |

Abstract

The study aims at verifying the effects of private donors' emotional or demonstrable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gratitude for their lives. As a result of causal analysis of the variable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group of private donors with increased gratitude for their lives through sponsorship, while emotional utility from donative ac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donor's mental health, demonstrable utility does not have it. The indirect effect of self-acceptance is proved between emotional or demonstrable utilities and mental health. Second, among the donors without increased the gratitude, emotional utility has direct effect on donor's mental health but demonstrable utility does not affect the mental health. While the self-acceptance shows a full mediation effect between demonstrable utility and mental health, emotional utility has no mediation effect. In conclu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atitude for their lives is empirically proved and the donors who their gratitude for life has increased due to donative activity show better mental health, self-acceptance level, higher emotional and demonstrable utility, therefore, the gratitude for life is a key for mental health through donation.

■ keyword : | Donors | Mental Health | Emotional Utility | Demonstrable Utility | Self-acceptance |

I. 문제제기

최근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회적 노력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액수 및 기부참여율의 증가현상은(한국조세연구원) 우리사회가 지닌 또 다른 건강한 측면으로 사료된다[3][4]. 또한 기부참여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부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함께 참여하여 소규모 후원과 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전반에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1][2].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물질(현금, 물품) 또는 시간 및 노력(자원봉사, 재능봉사)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5]. 기부는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의 촉발 및 개발 기제”가 될 수 있다[6]. 따라서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기부자들이 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조직 및 기관들의 사업을 유지·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친사회적 행위인 기부활동을 우리사회가 당면한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결속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규제와 통제가 많은 정부지원금에 비해서, 기관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다 용이한 민간자원, 특히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금 모금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매우 높다. 실제로 개인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일수록,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개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해준다[5][7][8].

개인의 경제사정이 기부중단의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7-10], 후원활동에 대한 보상의 결여가 기부행동 및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13-15].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타적, 친사회적인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보람과 기쁨과 같은 정서적 효용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시적 효용(예: 주변인으로부터의 인정, 세금혜택, 사회네트워크 확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부효능감이 기부를 지속가능하게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사회교환이론에 뿌리를 둔 기부효용성 이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5][13-15].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주로 성공적인 재원확보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사실을 반영해주시듯이[15-20], 지금까지 선행 연구의 연구주제는 주로 후원자 발굴 및 후원지속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이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 증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단지 사회복지조직의 재원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제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조직의 노력이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 및 자기성장 도모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 기부자들을 단지 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제공자(giver)만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지양하고,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성장, 정신적 웰빙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부자들의 정체성이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확대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1].

최근연구는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이들의 자기수용감을 향상시킨다고 밝히고 있다[21][23]. 자기수용감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핵심구성개념으로 알려졌다[2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기부효용감 및 자기수용감은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Watkins 외는 감사(gratitude)가 개인의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밝혔고[23], 그 이유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사건(positive event) 또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 긍정적인 사건들의

상기,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기부자들은 자신에 대한 가치가 고양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후원자들 중에 많은 경우, 자신이 후원하는 사회 복지기관 또는 시설이 원조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목격하고 직면할 기회를 갖게 된다.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간과했던 작은 감사할 일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갖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성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또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비교, 즉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기평가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사성향과 주관적 웰빙 또는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50-52]는 주로 상관성(correlations)분석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부관련 연구에서, 기부활동을 통한 정신적 웰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개인이 감사성향에 의한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가시적 기부효용이, 자기수용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서, 정서적·가시적 기부효용감이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그리고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등이 개인의 감사성향 수준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절효과(modul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기부효용

Sargeant 외 는 기부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

택(benefits)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부효용이론을 제시 하였다[24]. 기부효용이론은 교환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25]. Blau는 사회적 교환에서 물질적 가치보다 사회적 인정 또는 사회적 존경이 더 중요한 편익(benefit)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26].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마케팅에서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교환가치에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Arnett 외 는 특히 비영리조직에서는 정서적인 만족, 영적 가치, 인도주의적 이념의 공유 등의 요소들이 보상 또는 효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5][27]. 비영리 조직에서, 후원활동을 하는 개인 기부자들도 편익(benefit)을 추구하고자하는 '상호호혜성'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28-30].

Sargeant 외 는 '가시적 효용'(demonstrable utility)을 경제적 고려에 따른 혜택과, 기부자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서 타인으로 부티의 인정 등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24]. 이러한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실제적 또는 가시적인 이익(예: 세금혜택, 기부기관으로부터 유용한 자료 제공받음, 명성 및 위상, 타인의 인정 등)과 구별되는 개념에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인데, 내면적, 정서적 만족감과 관련된 효용개념이다. 즉,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체험하는 기쁨, 심리적 호뭇함 등을 얻는 것이다. 정서적 효용감은 Andreoni 가 언급한 '온광효과'(warm glow effect)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31].

이상 논의점을 토대로, 개인기부자들이 후원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은, 비록 미치는 영향력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2. 자기수용

Rogers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기본적인 감각자료에 대한 왜곡이 없이, 자신의 감정, 동기, 사회적, 개인적인 경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32][33]. 자기수용은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 뿐 만 아

니라, 부정적 모든 측면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34][35]. 이러한 자기수용감은 자기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단계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된다[33][35][36]. 선행연구는 자기수용과 자기 존중감간의 높은 상관성을 밝혔다[33][37]. 기부와 같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 친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면적 만족 및 보람 등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존중감 증진으로 연결되어, 자기 수용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Maccines는 자기수용과 심리적 건강과의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어[38], 자기수용이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3.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정신장애에 이환되지 않은 상태”이다[39]. 이러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일원론적인 정의에 Keyes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이론을 구축하였다[40][41]. 즉,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부재상태가 아니라, 행복을 지닌 상태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을 범주적(categorical)인 평가 뿐 만 아니라, 연속적(continuous)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39].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42]. Ryff는 주관적 안녕개념에서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해 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능적 요소를 반드시 함께 포함시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43]. 개인의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가치나 의미 뿐 만 아니라, 기능적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4-46].

Keyes는 “진정한 행복은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사회의 번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도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을 정신적 웰빙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다[47]. 저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기부효용감이 자기수용감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기수용감은 정신적 웰

빙을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4. 감사성향(dispositional gratitude)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용이 드는(costly), 가치 있는 소중한, 이타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체험하게 정서”를 의미한다[48]. 감사에 대한 정서적 특질/특성, 즉,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베푼 은혜나 사소한 도움에 감사함을 더 잘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McCullough 외는 밝힌바 있다[49].

선행연구는 감사함을 경험하거나 및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23], 이는 감사하는 자세가 인성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50]. 감사성향은 주관적 웰빙[51][52], 대인관계에서의 기능적, 심리적 웰빙[51][53], 또는 정신적 웰빙[52] 등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은 최근 국내의 관련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McCullough 외 는 ‘감사’는 ‘친사회적 상호성’(prosocial reciprocity)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49]. 사회복지관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층 더 감사할 수 있다면, 기부활동이 개인의 ‘감사성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인지적 메카니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부효용과 감사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논의점을 종합하여 정리해볼 때, 전술한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자기수용감 및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직접효과, 자기수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효과는 개인기부자들의 감사성향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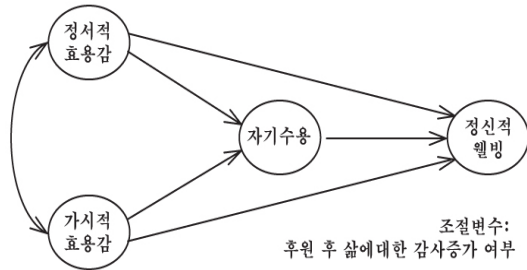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각각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직접 효과를 미치는가?
2.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각각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수용'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3.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정서적 효용' 및 '가시적 효용'이 각각 '정신적 웰빙'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 및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정도의 증가여부에 따라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대구 및 경북권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29개)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분석에 기초한 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개인 기부자들이다. 설문조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협조를 얻어서 2012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수는 1116개이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인: '정신적 웰빙'

종속변수인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를 평가하는 척도는 keyes가 개발한 정신적 웰빙(mental health) 척도(MHC-SF)를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가 번안하여 타당성 검증을 거친 한국판 정신적 웰빙척도(K-MHC-SF)를 사용하였다[39-41]. 6점 척도(0점~5점)로 각 척도문항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혀없음'(0점), '한번 혹은 두 번'(1점), '대략 1주에 한번'(2점), '대략 1주에 2~4번'(3점), '거의 매일'(4점), '매일'(5점) 등 6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신적 웰빙 척도는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그리고 '사회적 웰빙'(5문항)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표 3].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에 기초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신적 웰빙척도(.876) 뿐 만 아니라, 세 하위척도 즉, 정서적 웰빙(.948), 사회적 웰빙(.846), 심리적 웰빙(.913)의 신뢰도도 모두 양호하였다.

2) 독립변인

① '가시적 효용'

'가시적 효용' (demonstrable utility)척도는 Sargeant가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정호영(2006)이 번안한 척도(4문항)를 사용하였다[15][24](표 2 해당내용 참조).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가시적 효용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628이다.

② '정서적 효용'

'정서적 효용'척도는 Sargeant의 척도를 정호영(2006)이 번안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15][24](표 2 해당내용 참조). 모두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26이다.

3) 매개변인: '자기수용'

Ryff와 Keyes의 심리적 안녕척도(PWBS)의 하위척도인 자기수용척도를 사용하였다[27]. 척도내용은 자부심, 실수관용 등을 포함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표 3],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59이다.

4) 조절변인: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정도'

조절변수인,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는 '후원을 하면서 이전보다 나는 삶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된 것 같다'는 설문문항 내용에 대해서, 5점 척도인, '아주 그렇다'(1점)부터 '아주 그렇지 않다'(5점)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응답한 것을, "아주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2점)"과 "그저 그렇다"(3점)라고 응답한 경우는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하지 않은 집단' (N=378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런 편"(4점) 또는 "아주 그렇다"(5점)라고 응답한 경우는,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한 집단' (N=738명)으로 분류하여 조절효과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위해서,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여부' 라는 이분형 척도(0,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림 1]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통계분석은 AMOS 19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절대 적합지수(RMSEA)와 상대적 적합지수(CFI, TLI)를 각각 제시하였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서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 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분석의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정한 후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배경

전체 표본 중에 남성이 518명(46.6%), 여성은 558명(53.4%)이다. 학력배경을 살펴보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이상 학력이 약 69%(769명)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 까지 분포되었는데, 40대와 50대가 62%(678명)로 많은 편이다. 후원기간은

1년~3년이 23.7%(264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0년 이상 후원을 지속해온 장기후원자들(17.7%, 197명)도 적지 않았다.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주요 변수들(정신건강,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자기수용감,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정도)의 각 척도의 평균값은 [표 1]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표 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척도	평균=M(표준편차=SD)			t값
	두 집단 비교			
	전체	감사증가 집단	감사증가 하지않은 집단	
정서적 효용감 (1-5점 척도)	3.0290 (.7277)	3.1861 (.7155)	2.7222 (.6502)	-10.897
가시적 효용감 (1-5점 척도)	3.1437 (.7688)	3.2656 (.7432)	2.9056 (.7633)	-7.587
자기수용감 (1-5점 척도)	3.5963 (.5202)	3.7060 (.4999)	3.3821 (.4919)	-10.298
정신적 웰빙 (0-5점 척도)	2.5410 (.9527)	2.7075 (.9279)	2.2158 (.9169)	-8.411
감사 (5점 척도)	3.740 (.709)	4.170 (.3770)	2.890 (.3420)	-57.351

'정서적 효용'(M=3.0390), '가시적 효용감'(M=3.1437) 모두 중간 점수(그저 그렇다) 수준이다. 두 효용감에 비해 자기수용감(M=3.5963)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다. 종속변수인 '정신적 웰빙'의 척도의 평균값(M=2.5410)은 "일주일에 한번"(2점)보다는 높지만, "일주일에 2~3번"(3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후원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를 알아보는 조절변수는 다집단분석에 기초한 조절효과분석을 위해서 이항변수(M=.6140)로 재구성한 변수이다. 원래 5점 척도(M=3.740)를 재코딩한 것인데, 응답자들이 후원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더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명백하게 긍정적인 응답을 한 수준(4점이상)보다는 다소 못미쳤지만 중간점수(3점)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 5점 척도 값을 두 집단(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 집단, 증가하지 않은 집단)간에 비교해보았을 때, 두 집단 간의 평균 값은 매우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조

절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에서 투입한 이항변수(0, 1)로 재코딩한 변수(M=.614)의 평균값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1.4%의 응답자들이 후원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후원활동이 개인기부자의 감사성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에 주요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감사가 증가한 집단이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정서적 웰빙은 물론,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자기수용감 등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어, ‘감사성향’이 개인의 정신적 웰빙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3.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주요 잠재변수들(정신적 웰빙,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자기수용감)을 각각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각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왜도는 -.875-.409로 절대값 2를 넘지 않았다. 첨도값의 범위가 -.898-1.193으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된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의 값이 .524 이하이어서, 다중공선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살펴 보았는데,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chi^2=615.495$, $df=98$, $p.000$, $TLI=.908$, $CFI=.925$, $RMSEA=.069$)는 기준을 충족하여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개별 측정항목의 구성이 비교적 타당하였고, 주요척도들의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가 인정되었다[표 2].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N=1116명)

잠재 변인	측정변인 (indicators)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P	SMC
정서적 효용감	삶의 활기	.444	.487	.035	13.834	***	.197
	잘한 일	.900	1.248	.069	18.217	***	.810
	죄책감면책	.762	1.000				.581

가시적 효용감	세금공제혜택	.488	.809	.070	11.605	***	.238
	기관자료혜택	.684	.883	.070	12.613	***	.468
	봉사인맥혜택	.678	1.000				.459
자기 수용	결과만족	.728	1.000				.529
	자부심	.697	.807	.037	21.917	***	.486
	타인성취	.057	.072	.040	1.795	***	.003
	본인성격만족	.609	.838	.044	19.147	***	.371
	실수관용	.715	.851	.038	22.477	***	.511
	과거만족	.772	.872	.036	24.221	***	.594
정신적 웰빙	흐뭇함	.775	.976	.040	24.299	***	.600
	정서적웰빙	.786	1.000				.618
	사회적웰빙	.835	.981	.033	29.710	***	.697
	심리적웰빙	.904	1.041	.033	31.458	***	.818

***p<.001, **p<.01, *p<.05

5. 측정동일성 검증

조절효과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부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증가여부(조절변수)에 따른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간의 카이제곱값($\Delta \chi^2$)이 8.234로, 자유도차이(Δdf)12일 때, 임계치 21.0보다 작아서, 다집단 분석의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었다.

표 3.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기저모형	671.458	196	.000	.907	.924	.047
측정동일성	679.692	208	.000	.913	.925	.045

6. 다집단 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독립변수들)이 정신적 웰빙(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수용감(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정도’(조절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절효과검증에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조절효과분석을 위해서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토대로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모형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RMSEA=.045, CFI=.925, TLI=.913)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집단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4]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1)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집단

다집단 분석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RMSEA=.045, CFI=.925, TLI=.913)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후원활동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전 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된 개인 후원자들의 경우에 모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효용감→정신적 웰빙’(0.093*) 경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가시적 효용감→정신적 웰빙’(-.060)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서적 효용감이 증가할수록, 정신적 웰빙이 증진되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정신적 웰빙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연구문제 1). ‘정서적 효용감’(0.166***) 뿐 만 아니라, 가시적 효용감(0.157**)은 각각 자기수용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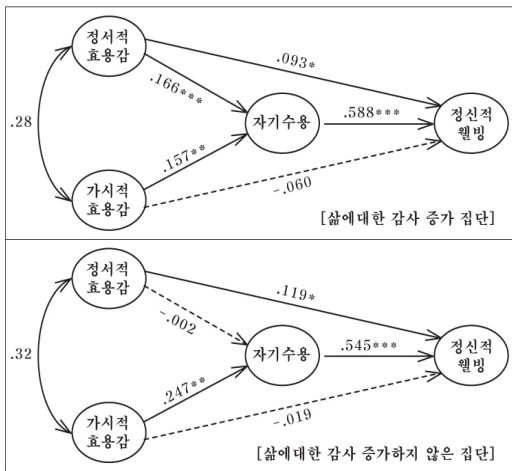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도

이러한 본 연구결과,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관신뢰도, 및 자기수용감 등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탐하였고,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라는 조절효과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분석한 본 연구모형과는 상당히 다른 연구모형에 기초한 선행연구결과[5][21]와 에서 제시한 결과, 즉 정서적 효용감(0.115***) 과 가시적 효용감(0.228***)이 자기수용감에 각각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도 부합한다.

자기수용감이 향상될 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은 정신적 웰빙에 매우 강한 직접효과(0.588***)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본 연구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정리해보면,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수용감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기수용감은 정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부분매개역할(0.097; 하한값 .117~상한값 .150)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비록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수용감을 완전매개(0.092; 하한값 .019~상한값 .163)로 하여, 가시적 효용감 또한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문제 2).

표 4.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집단의 경로분석

(N=738)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정서적 효용 → 수용	.166	.135	.037	3.661***
가시적 효용 → 수용	.157	.142	.048	2.961**
수용 → 웰빙	.588	.869	.065	13.293***
가시적효용 → 웰빙	-.060	-.080	.061	-1.318
정서적효용 → 웰빙	.093	.111	.047	2.372*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정서적 효용 →(수용)→웰빙	.097	.117	Lo: .039	Hi: .150
가시적 효용 →(수용)→웰빙	.092	.123	Lo: .019	Hi: .163
모형의 적합도	$\chi^2 = 679.692, df=208, p.000,$ TLI= .913, CFI= .925, RMSEA=.045			

***p<.001, **p<.01, *p<.05

2) 후원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

앞서, 후원활동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집단에서와 같이, 후원활동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서도, ‘정서적효용감→정신적 웰빙’(0.119*)경로는 유의하였지만, ‘가시적 효용감→정신적 웰빙’(-.019)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정서적 효용감

이 증가할수록, 정신적 웰빙이 증진되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정신적 웰빙증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그리고 ‘가시적 효용감’(.247**)은 자기수용감에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정서적 효용감(-.002)은 자기수용감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은 후원활동 후 감사함이 증가한 집단에서와는 다른 결과로 대조된다.

표 5.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의 경로분석 (N=378)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정서적 효용 → 수용	-.002	-.002	.059	-.035
가시적 효용 → 수용	.247	.204	.061	3.234**
수용 → 웰빙	.545	.800	.087	9.164***
가시적효용 → 웰빙	-.019	-.023	.080	-.289
정서적효용 → 웰빙	.112	.148	.075	1.967*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정서적 효용 →(수용)→웰빙	-.001	-.002	Lo: -.083 Hi: .064 (N.S)	
가시적 효용 →(수용)→웰빙	.135	.163	Lo: .055 Hi: .230	
모형의 적합도	$\chi^2 = 679.692, df=208, p.000,$ TLI= .913, CFI= .925, RMSEA=.045			

***p<.001, **p<.01, *p<.05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후원활동 후,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자기수용감은 가시적 효용감과 정신적 웰빙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수용감은 가시적 효용감이 비록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없지만, 자기수용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2).

두 집단의 경로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술한바와 같이,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그리고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정신적 웰빙’ 이 두 경로에서는 후원활동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이 증가한 집단과 증가하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정도’(조절변수)에 의한 유의한 조절효과(moderating)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연구문제들에 대한 검증결과 밝혀진 각 경로들의 직·간접효과 및 조절효과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집단과 증가하지 않은 집단) 모두,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한 정서적 효용감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기부를 통해 얻은 가시적 효용감은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용감은 ‘정서적 효용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록 두 집단 모두, 기부활동을 통해 얻은 가시적 효용감이 개인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을 완전매개(full-mediation)로 하여,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시적 효용감의 증진은 자기수용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수용감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웰빙 또한 증진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반면, 정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수용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후원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만, 부분매개(partial-mediation)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후원활동을 통한 정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검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개인후원자들의 경우, 후원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효용감이 증진될수록, 이들의 자기수용감 또한

향상되는 직접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후원활동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이 정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미치는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여부'에 의해서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고,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효용감(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은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웰빙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기부자들을 단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자원(현금, 물품)을 제공하는 제공자(giver)만이 아닌, 후원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로 간주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후원자 모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된 타당성이 높은 홍보정보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은 기부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부분 또는 완전매개효과)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서적 효용감과 다르게, 가시적 효용감의 경우, 비록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기수용감을 완전매개로 할 경우,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입증되어, 정신적 웰빙증진에 자기수용감이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개인기부자들의 경우, 후원활동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효용감 뿐 아니라, 가시적 효용감이 증가할수록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효용감'과 '삶에 대한 감사함의 증가'가 개인 기부자들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순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삶에 대한 감사함 증가'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국내에서 최근 보고된 선행연구[52]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셋째, 기부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로부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보상 및 편익(benefit)이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개요인인 '자기수용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서도, 개인 기부자들의 감사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발표된 한 개입 연구에서 소개한 '감사일지작성' 프로그램(주 1회 작성, 4회기)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52]. 개입 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28명의 대학생)의 우울감이 감소하였고, 주관적 웰빙이 향상된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후원사업은 단지 후원자 발굴 및 후원지속만을 위해서 노력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부자들이 후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정신적 웰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원조를 받은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개인 후원자들은 이들 클라이언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간과하기 쉬웠던 작은 것에 더욱 더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정신적 웰빙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감사성향의 강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시도해본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언급을 해보면, 먼저 2012년 후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분석에 기

초하여 본 연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기부 문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부관련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기부활동을 통한 기부효용이 정신적 웰빙 증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증가 여부에 의한 조절효과도 함께 병행하여 분석한 연구의 의의를 가지지만, 다집단 분석방법에 기초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각 집단이 지닌 다른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더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1] 이정은, 신현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가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54-62, 2014.
- [2] 권혁인, 이승하, 나윤빈,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실패 사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125-136, 2014.
- [3] 정민주, *비영리기관에 대한 개인기부자들의 기존 경험만족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 아름다운재단, 제 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 자료집, (2012.10.17)
- [5] 이원준,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6] 정선희, *한국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 비영리 지식포럼 자료집*, 2002.
- [7] 강철희, 정무성,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권, pp.343-378, 2002.
- [8] 변은지, *사회복지조직 기부자의 충성도(Donor Loyalty)에 관한 연구 - 기부자의 인식요인과 조직의 기부자 관계관리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0.
- [9] 최진균,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사업에 있어서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0] 조소라,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1] 박종미,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2] 서혜경,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13] A. Sargeant and E. Jay, *Fundrais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4.
- [14] A. Sargeant and E. Jay, *Redefining Commitment*, Final Report, 2005.
- [15] 정호영,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16] C. A. Scott, “Modifying socially-conscious behavior: The foot-in-the-door techniq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4, No.3, pp.156-164, 1977.
- [17] W. Grasty and K. Sheinkopf, *The annual fund: How to grow perennial rewards from an annual campaign?* LA: The Grantsmanship Center, 1982.
- [18] S. Scribner and F. Green, “Asking for money,” *Grantsmanship Center News*, Vol.11, No.2, p.9, 1983.
- [19] H. A. Rosso, *Achieving excellence in fund raising: A comprehensive guide to principles, strategies, and methods*. Jossey-Bass, 1991.
- [20] C. Smith, “The new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Vol.72, No.3, pp.105-114, 1994.
- [21] 이원준,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

- 용감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6권, 제1호, pp.333-361, 2014.
- [22]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4, pp.719-727, 1995.
- [23] P. C. Watkins, K. Woodward, T. Stone, and R. L. Kolts,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31, No.5, pp.431-451, 2003.
- [24] A. Sargeant, J. B. Ford, and D. C. West,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9, No.2, pp.155-165, 2006.
- [25] G. C. Homans, *Social behavior in elementary forms. A primer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61.
- [26] P. M. Blau, “Interaction: Social Ex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7, pp.452-458, 1968.
- [27] D. B. Arnett, S. D. German, and S. D. Hunt, “The identity salience model of relationship marketing success: The case of nonprofit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67, No.2, pp.89-105, 2003.
- [28] R. Eisenberger, P. Fasolo, and V. Davis-LaMastro,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diligence, commit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5, No.1, pp.51-59, 1990.
- [29] D. M. Rousseau and J. McLean Parks, “The contrac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15, pp.1-43, 1993.
- [30] S. M. Farmer and D. B. Fedor, “Volunteer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9, No.4, pp.349-368, 1999.
- [31] J. Andreoni,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7, No.6, pp.1447-1458, 1989.
- [32] C. R. Rogers, *The significance of the self-regard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1950.
- [33] 이수연,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4] J. Powell,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Chicago: Argus Communications, 1969.
- [35] 이정민,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6] C. R.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1942.
- [37] C. R. Rogers and R. F. Dymond,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o-ordinated research studies in the client-centered approach*. Edited by CR Rogers and RF Dymo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 [38] D. L. MacInnes, “Self esteem and self 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3, No.5, pp.483-489, 2006.
- [39]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정신적 웰빙 척도 (MHC-SF) 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pp.369-386, 2012.
- [40] C. L. M. Keyes,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3, No.2, pp.207-222, 2002.
- [41] C. L. M. Keyes, *Complete mental health: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 C. L. M. Keyes

& J. Haaidt(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pp.293-312), Wa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2003.

[42]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43]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t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44] R. M. Ryan and E. L. Deci,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2, No.1, pp.141-166, 2001.

[45] E. Diener, E. M. Suh, R. E. Lucas, and H.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2, pp.276-302, 1999.

[46] 손선희, 박정양, 서경현, "여성 직장인의 감사성향과 주관적 웰빙 및 행복감 간의 관계: 직무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제23권, 제4호, pp.215-223, 2015.

[47] D. L. M. Keyes, "Social well-b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61, No.2, pp.121-140, 1998.

[48] A. M. Wood, J. Maltby, N. Stewart, P. A. Linley, and S. Joseph, "The role of gratitude in the developmental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on: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2, No.4, pp.854-871, 2008.

[49] M. E. McCullough, R. A. Emmons, and J. A. Tsang,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No.1, pp.112-27, 2002.

[50] R. A. Emmons and M. E. McCullough,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No.2, pp.377-389, 2003.

[51] 노혜숙, 신현숙,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2호, pp.147-168, 2008.

[52] 이승연, 한미리, "노인의 감사성향 및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29권, 제3호, pp.53-73, 2016.

[53] 김유리, 이희경, "감사성향이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제25권, pp.19-35,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2.

[54] 이지은, 김정호, 김미리혜, "감사일지 작성이 우울 성향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 주관적 웰빙, 낙관성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21권, 제1호, pp.19-46, 2016.

저 자 소 개

이 원 준(Won-June Lee)

종신회원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부